

결코 저물지 않는 해

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
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
여기 계시지 않고
살아나셨느니라

눅 24:5-6

성금요일 —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습니다 —
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. 제자들에게
예수님은 그들 삶의 태양이셨습니다. 주님께서 기적을 연달아
베푸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셨을 때 아마도 그들은 주님을
자랑스러워 했을 것입니다. 그런데 이제 삶과 죽음을 주관하는 권세를
가지신 생명의 왕이 죽어서 누워계십니다.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로
되어 있던 메시아는 어디에 계시는가?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
“그러나 우리는 그 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바랐습니다”
(눅 24:21)라고 말했습니다. 그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시달렸을
것입니다: “우리가 오류에 빠졌나? 그분은 메시아가 아니었던 말인가?
그것이 우리가 마음 속에 품고 있던 행복이 아니었던가! 하지만 이제
우리는 조롱과 박해를 받을 것이야!”

제자들은 두려워하여 문들을 닫은 채 서로 만났을 뿐 — 그들의
전부이셨던 태양은 지고 말았습니다. 여인들이 “예수님께서
살아나셨고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, 우리는 주님을 보았습니다”라고
말했을 때 제자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. 그게 정말 사실일까?

우리 역시 ‘해가 지고 있는’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. 대부분의 사람들이
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— 압박감, 우울증, 두려움이 퍼져갑니다.
하나님께서 자신을 숨기시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 주변이 어두워지는
시간을 우리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?

고통, 감당할 수 없는 실망, 극복할 수 없는 유대관계... “나는 더 이상
할 수 없어!” “나에게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거야!”

우리가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나요? — 아니면 우리는
아직도 해가 떠오를 것이라고 믿고 있나요?

예수님은 이 무덤 앞에 서서 “내가 부활한 예수님이야, 나오라!”
외치시면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. 붙잡기만 하면 모든 것이
달라집니다. 슬픔은 기쁨으로 변하고, 죄는 용서를 받습니다.
하나님께는 고난과 심판이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삶입니다. 해가
다시 뜰 때가 옵니다 — 저물던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요.

예수님께서서는 빛나는 권능의 영광으로 가득한 빛을 입으시고
부활하셨습니다. 그리고 제자들은 뭔가 강력한 것을 경험합니다.
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40 일 동안 그들에게 당신의 왕국에
관해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“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
가르치라”(마 28:19)는 명령을 하셨습니다.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
탄생했고, 예수님은 주님을 사랑하고, 주님의 기쁨을 발산하며, 주님의
승리로 나아가고, 고난 속에서도 강한 전 세계의 수많은 믿는 자들을
위한 왕이 되실 것입니다.

우리는 이 어둡고, 위험하고, 두려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임을
믿습니다. 예수님은 승리로 부활하셨고, 살아계시고, 역사하십니다.
예수님을 바라보고, 믿고 사랑합시다.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위해
죽으셨습니다.

**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고,
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.**

성경인용: 개역개정

© 기독교마리아자매회, 독일 다름슈타트

Postfach 13 01 29, 64241 Darmstadt, Deutschland

www.kanaan.org

TK 05